

헝가리의 대학 실태와 교류 전망

—東歐圈 국가의 大學教育(1)—

朴 秀 永

(韓國外大 헝가리語科)

東歐圈 국가의 大學教育

1. 헝가리의 대학 실태와 교류 전망
2. 체코
3. 루마니아
4. 유고

1. 머리말

9세기말(896년) 우랄 산맥의 서쪽 지역으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헝가리 땅인 카르파텐 분지에 정착한 마자르(Magyar)인들은 처음부터 유럽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로서 유럽의 편입과 그들의 고유한 동양적 민족 문화 보존 간의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착한 후 곧 이어 로마 카톨릭을 받아 들임으로써 헝가리 민족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약 500년에 걸친 경제적·정치적 발전으로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16세기초 서쪽으로 팽창하는 오스만 터키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완충 지역이 되어 나라가 3분할된 상태로 150년간 유지되다가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합병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그 후

베르사이유 평화 조약의 결과로 헝가리 영토는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현재의 상태가 되었고, 2차 대전 후 소련의 영향권 내에서 사회주의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즉 유럽 문화 수용의 주체로서, 외세에 대항하는 투쟁의 선봉자로서, 그리고 사회 변혁에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게 된다.

헝가리의 경제는 지하 자원의 부족, 좁은 영토, 기후 등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농업경제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는데, 2차 대전 후에는 산업화를 통해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헝가리의 산업화는 소련 블록의 일원이라는 점과 산업 부문의 분업 체제로 인해 제한적인 발전일 수밖에 없었으나, 정치적으로 소련의 노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독자적 입장을 견지했다. '68년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여러 국가 중 경제적 실험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공과·상과·무역대학 등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에서 설립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동구권 국가 대부분에 파급된

체제의 개방과 개혁의 흐름은 경제 개혁의 선반주자인 헝가리에 정치적 대변혁의 결과를 초래했다. '90년 봄 총선거와 함께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해체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948년 공산화 이후, 공산체제의 특성 속에서 헝가리 교육의 전 분야는 맑스-레닌 철학에 기초를 두고, 당이 설정한 산업화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헝가리는 40년 이상 지속된 경직된 국가 정치 체제의 극복과 국민 경제의 후진성 탈피, 낙후된 산업 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와 예상되는 교육 제도의 개편과 함께 대학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근래 1~2년 사이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고 앞으로의 상황도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헝가리 역사 속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헝가리 교육 제도의 발달과 대학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한국 대학과의 교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교육 제도와 대학의 발달 과정

1) 헝가리 민족 국가의 성립부터 사회주의화 이전까지(1000~1945년)

헝가리는 카르파텐 분지에 정착한 후, 이웃 독일·슬라브 민족과의 갈등과 교류, 그리고 비잔틴과 로마 등·서 교회의 각축 속에서 스테판(István) 왕이 부족 간의 분열된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로마 카톨릭을 받아 들임으로써(1000년) 유럽의 한 독립된 민족 국가로서 라틴 문화에 편입되어 봉건 체제를 구축한다.

14세기 후반 이웃한 나라들에서는 잇따라 대학이 설립되는데, 1348년에 프라하대학, 1364년에 크라카우대학(폴란드), 그리고 1365년에 비엔나대학이 설립된다. 헝가리도 이를 본받아 페취(Pécs)의 주교 빌모쉬(Vilmos)가 1367년 페취에 대학을 설립한다. 이 대학은 이탈리아의 대학을 완전히 모방하였는데, 교수도 이탈리아

에서 초빙한 정도였다. 페취의 대학은 1395년 오부다(Óbuda, 현재 부다페스트의 한 지역)에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면서 폐교하게 된다. 오부다의 대학에서는 신학·법학·의학·철학 등의 학문 분야를 교수했으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 대학에서도 비엔나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했는데 1414년에 폐교된다.

그 당시의 교육 기관은 대부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교좌 학교와 수도원 학교였다. 이들 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발전 가능성을 가졌던 데 반해, 페취와 오부다의 대학은 조직 자체도 교회로부터 독자적이지 못하고 학위 수여 능력도 없었으며 교수에게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지 못한 취약한 상태였다. 또한 헝가리인들에게는 자국의 대학보다 이웃 나라 대학의 매력이었기 때문에 이 2개의 초기 대학은 수도원 학교로 代置되었다.

그 후 15세기에는 포조니(Pozsony, 현재 체코의 Bratislava)에 에스페르곰(Esztergom)의 대주교 비테즈(Vitéz)에 의해 볼로냐대학을 모방한 대학이 설립되었으나, 위와 비슷한 이유로 불과 20년 동안만 유지되고 1471년에 폐교된다. 중세의 헝가리 대학은 半유목 민족이었던 헝가리인의 유럽화 과정에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학교와 외국 대학에 의해 도태되었다.

그 후 종교 개혁과 문예 부흥으로 헝가리에 프로테스탄트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북동부 지방의 데브레첸(Debrecen)과 샤로쉬삐떡(Sárospatak), 마로쉬바샤르헤이(Városvásárhely, 현재 루마니아의 Tirgu Mures), 브라쇼(Brassó, 루마니아의 Braşov)대학들이다. 또한 16, 17세기 반동 종교 개혁의 추진 세력이었던 예수회에 의해 대학들이 설립되었으며, 18세기에는 로마 교황청 소속 피아리스트(Piarist)에 의해 초급 중학교(grammar school)가 생긴다.

1526년 오스만 터키의 헝가리 점령으로 나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서북부 지방은 합스부르크 지배, 동부는 헝가리, 현재의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중부 지방은 터키 지배 영

역이 되었다. 터키의 침략은 헝가리에 있어서 종교 개혁의 문화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대학이 민족 자주 운동을 주도하여 식민화 시도에 항거하는 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635년 예수회 소속 에스페르곰(Esztergom)의 대주교 빠즈마니 페터(Pázmány Péter)가 니지쑤바트(Nagyszombat, 현재 체코의 Trnava)에 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이 1777년 부다(Buda)로, 이어서 페쉬트(Pest)로 옮겨져 오늘날 부다페스트(Budapest)의 에트뵈쉬 로란트(Eötvös Loránd) 종합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 대학의 진보적 교수들과 학생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헝가리 지배에 대항해 싸웠으며, 수 차례에 걸친 농민 전쟁과 해방 전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1777년 헝가리 교육 제도를 최초로 통일한 국민 교육 법전 'Ratio Educationis'가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는 문맹 퇴치에 역점을 두었고, 교육 기회를 일반 민중에 제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헝가리어로 가르치는 3~4년제 국민학교와 라틴어로 교육하는 중학교 또는 2년제 초급 중학교를 만들었다. Ratio Educationis는 국가에 의해서 최초로 국민 교육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고, 통일된 교육 제도를 만들었으며, 계몽주의 교육에 적합한 물리 과목 등을 보급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18세기말에는 직업 교육이 시작되어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일요 설계 학교가 설립되고, 셀메츠바냐(Selmechánya, 현재 체코의 Banská Štiavnica)에 광업 전문 학교, 그밖에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업 기술과 상업을 배울 수 있는 여러 실업 학교가 생겼다. 1802년에 유럽에서는 최초로 농아 학교가 바츠(Vác)에 세워지며, 몇 해 후에는 부다페스트에 장애자 학교와 맹아 학교가 설립된다. 19세기 중반의 개혁 시대에는 유치원이 세워지고, 유치원 교육과 교사 양성을 위한 학교도 설립된다. 1846년에는 현재 부다페스트 공대의 전신인 팔라티네 요제프(Palatine Józseph) 직업 학교가 생겼다. 1868년에 의무교육법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1848년 혁명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에트뵈쉬 요제프(Eötvös József)에 의

해 초안된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해 6년제 국민학교와 3년제 초급 중학교, 6년제(후에 4년제로 바뀜) 고등학교, 3년제 교육대학 등의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당시는 국가와 시 당국에 학교 설립의 권한이 있었지만, 교육 제도의 대부분은 교회의 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었지만,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상류층의 전유물이어서 노동자·농민 출신 학생은 전체 학생의 3~4%에 불과했다. 1919년 벨라 쿤(Béla Kun)에 의한 133일 간의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육 개혁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학교가 국유화 되고, 교육 제도는 8년제 국민학교와 4년제 직업 학교 또는 5년제 중학교로 바뀌며, 새로운 교과과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 후 반동 혁명 시대에 삭제되었다가 1948년의 공산화 이후에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2) 공산화 이후 현재까지(1948~)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일련의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는 헝가리 공산당의 교육 철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1949, 1954, 1961년에 통과된 교육에 관한 법령에 나타나 있다.

헝가리의 교육 목표는 첫째로 헝가리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익이 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서 맑스 철학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한편 헝가리의 문화적 전통을 중시했다. 둘째로 교육은 사회적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쇄시켜 줄 수 있으므로 교육의 기회를 전 국민에게 확대시키고자 하였는데, 특히 노동자·농민 계급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셋째로 교육과 경제 성장 간의 상관 관계를 인식하여 국가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기술 교육과 전문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48년에 8년제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학교에 대한 교회의 영향을 배제시켰다. 이와 함께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던 학교들이 국유화되고 학교 운영과 도서 출판에 대한 교회의 권한이 박탈되었다.

또한 노동자·농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등·고등교육 기관의 입학 허가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노동자·농민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기도 했다.

1951년 국가의 통제 하에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 일대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전문적 기술 교육을 강조한다는 취지 하에 종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의과대학이 모두 독립 대학으로 승격되고 몇몇 공과대학과 전문학교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60년대에는 공과대학, 공업전문대학, 상과대학 등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의무 교육의 강화와 교육 기회의 개방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대학이 급증했다. 노동자·농민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각 교육 기관에 야간 학교와 통신 학교를 설치하고, 실업 학교를 졸업한 노동자들에게 기술 중학교 교육을 제공하여 이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1974년에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숙련 노동자들을 1년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의 긍정적 결과에 따라 농업·법률·경제 분야로 확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여러 형태의 교육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혜 조치로서 수업 시간과 시험 준비 시간을 노동 시간에서 줄여 주는 등 교육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었다.

지난 40년간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헝가리 국민의 교육 수준은 일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취학 연령인 6세 어린이들 중 97~98%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국민학교 졸업생의 약 90%가 인문계 학교와 직업 학교 그리고 실업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대학 진학 인구는 1938년 해당 연령 인구의 2%였으나, 오늘날 11%로 증가했다. 또한 노동자·농민 출신의 대학 입학은 1930년대에 3~4%였던 것이 현재는 40%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양적 발전과 동시에 헝가리의 교육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누적된 경제 문제로 인한 교육 시설 확충의 지연, 인구 분포의 불균형, 도시·지방 간의 격차, 그리고 산업화에 의해 야기되는 제반 사회 문제 등이 대중 교육

을 현대화하려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3. 학교 제도

1948년 헝가리에서 최초로 실시된 의무 교육과 함께 학교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현행 학교 제도는 그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 어린이들은 대개가 만 3~6세에 유치원 교육을 받는데(1980년, 88%),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어린이들의 취학 전 교육 기관으로 1년 기간의 준비 학교도 있다. 만 6세가 되면 8년제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보통 14세에 졸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늦어도 16세까지는 국민학교 의무 교육을 마쳐야 한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2~4년간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을 받게 된다. 헝가리의 의무 교육 기간은 10년으로서 중등교육 과정의 2년까지 해당된다. 중등교육 기관으로는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와 공업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 고등학교 등이 있다.

일반 고등학교는 4년제로 졸업 시험을 치러야 하며, 졸업 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별로 실시되는 입학 시험 성적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공업 고등학교도 4년제로 일반 교육과 함께 다양한 직업 분야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익히게 된다. 공업 학교에도 졸업 시험 제도가 있으며, 졸업 후 직업을 갖거나 또는 공업 교육과 관련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실업 학교는 3년제로 특수 직업 교육에 치중하여 기술자를 양성한다. 졸업시에는 숙련 기술자 시험을 치루게 되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 고등교육 기관으로 간주된다.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4년제 공업 학교에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밖에 2년제의 속기·타자 학교가 있다.

헝가리 대학의 특성은 여러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Tudományegyetem)가 단 4개교에 불과하고 각 단과대학이 하나의 독립된 대학(egyetem)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대학(szakiskola, főiskola)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대학의 수업 연한은 의과가 6년, 약학·경영학·경제학 등이 4~4.5년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5년이다. 교육·사범대학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2년간, 국민학교 4학년 이하를 교육하는 경우는 3년간, 그리고 5~8학년 담당 교사들은 4년간 교육받는다. 중학교 교사는 5년간 대학 교육을 받으며, 공업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공과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고, 특수 과정으로서 교육학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공업전문대학 등 전문 학교의 수업 연한은 대개 2~3년으로 정해져 있다.

항가리에는 야간·통신 학교가 모든 학교에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 야간·통신대학을 두고 있어 교육 기회의 광범위한 확대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사회 계층 간의 교육 마찰을 줄이고, 대학 입학 시험으로 야기되는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야간·통신대학의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대학의 실태

항가리에는 57개의 고등교육 기관이 있다. 이중 4개교는 종합대학교(Tudományegyetem)이고, 18개교는 (단과)대학(egyetem)이다. 그밖에 전문대학(szakiskola, főiskola)과 전문 학교 등이 있다. 4개의 종합대학교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대학들로 항가리의 4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의 에트비시 로란드(Eötvös Loránd, 1635년 설립)대학, 세게드(Szeged)의 요제프아틸라(József Attila, 1872)대학, 데브레첸(Debrecen)의 코슈트 러이오쉬(Kossuth Lajos, 1912)대학 그리고 페취(Pécs, 1367)대학 등이다. 대학으로는 경제학의 칼·마스대학(1948)이 부다페스트에 있으며, 그밖에 의과대학 4개, 공과대학 3개, 농과대학 3개, 미술대학 4개 그리고 수의학대학, 임학대학, 원예학대학이 각각 1개씩 있다. 또한 교육대학 5개, 교육전문대학 8개, 보육전문대학 4개 등이 있다.

1) 입시 제도

대학 입학에 관한 법령은 1963년 문화부(Művelődésügyi minisztérium)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82년 새 입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학의 정규 과정 신청자는 35세 미만으로 중등교육 졸업증(érettségi)을 소지해야 하며, 입학 시험은 문화부에서 지정한 시험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이 있다.

입학은 중등교육 기관 3,4학년 성적과 입학 시험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입학 시험의 면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 중등교육 경시 대회에서 10위 안에 든 경우와 농업기술학교(technikum)를 졸업하고 농과대학에 지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야간·통신 과정의 입학 조건은 중등교육 졸업증이 있는 사람은 입학 시험을 치루지 않으며, 중등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산업 현장 또는 집단 농장, 그리고 군대에서 1년간 일한 사람의 경우도 입시가 면제된다. 외국 학생의 경우는 입학 전에 서류 심사와 특별 평가를 받는다.

2) 행정 및 재정

항가리의 대학은 모두 국립이며,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교육 체제의 구성과 방향이 설정된다. 대학에 대한 실제 관리는 문화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종합대학과 상대, 공대, 사범대, 교육대, 예술대학 등은 문화부의 감독 하에 있다. 의과대학은 보건부, 농과대학은 농업·식량부가 직접 관리하며, 사관학교는 국방부 산하에 있다. 해당 부처는 학과의 신설 및 폐쇄, 대학의 예산 편성, 대학 학칙의 최종 인가 그리고 대학의 장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부 장관은 항가리 학교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문화부의 감독을 받는 셈이다. 1969년의 개혁 조치로 문화부의 권한을 일부 대학으로 분산시켰고, 대학 위원회에서 교과과정의 계획과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혁으로 대학 위원회의 권위와 대표성이 강화되도록 교수·직원·학생이 대학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문화부는 국가 예산 중 학교 교육의 각 부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민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높은 비율로 배당된다. 이는 기숙사, 식비, 장학금 등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약 80% 이상이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한편, 대학의 실질적 유지는 지방 위원회의 교육 당국의 업무이다. 헝가리는 행정 구역상 수도를 포함해서 20 개의 지방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제반 교육 사업과 감사를 담당한다. 이러한 행정의 이중 구조는 지방의 특색과 지방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학교 간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특히 인구의 도시 편중 현상으로 인한 학생과 교수의 확보 등에 문제가 되고 있다.

3) 학제 및 학위

헝가리의 고등교육 기관은 각각 2~6 년의 교육 연한으로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이나 졸업시의 학위에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종합대학교의 경우, 법학부는 4년 6개월 과정이고 나머지 학부는 모두 5년이다. 칼·맑스대학은 경제학이 4년 6개월 과정이고 나머지는 4년 과정이다. 이 대학들에서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증(oklevél)을 수여하는데, 학사(BA)학위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의과대학의 경우, 일반 의학부는 6년, 치의학은 5년 그리고 약학부는 4년 과정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 시험을 치루는데, 일반 의학과 치의과에는 의학사 Diplom(Orvosdoktori oklevél)이 수여되며, 약학과에서는 약사증(gyógyszerész oklevél)이 수여된다. 졸업 후 전문의(Szakorvos)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 전문의 양성 시험 위원회(Országos Szakorvosképesítő Vizsgabizottság)에서 제시한 30개 분야에서 한 분야를 선택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모든 의대 졸업생들은 대학 병원에서 2년 간의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때는 특별 장학금이 지급된다.

공과대학은 기계공학·화학공학·전기·수송공학과 야금학·광산학·건축학 등에서 모두 5년을 공부해야 한다. 졸업시 국가 시험은 없으

나, 대신 논문을 제출해서 통과되어야 공학사증(mérnök oklevél)을 받는다. 이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한해서 경제학과의 특별 통신 과정을 이수하면 공학-경제학사증(mérnök-közgazdász)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공과대학과 마찬가지로 농대의 경우도 전 학부의 수업 연한이 5년이며, 졸업시에 논문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학위를 취득한다. 또한 모든 공과 계열의 학부는 별도로 3년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1968년 이후 기술자의 이중 양성이라는 계획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는 기술 연구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육 차원의 이론적 전문가와 함께 기술 설계와 응용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밖에 수의과 대학은 5년 과정으로 국가 시험을 통해서 의사증을 받는다. 전문대학과 연구소는 대체로 3~4년 과정으로 무역학, 예술, 보육학 그리고 군사교육 등 여러 분야가 개설된다.

종합대학교의 모든 학부, 상과대학과 의과대학 중 약학부, 공과대학 농업-공학부, 산림공학대학 원예학부 등을 졸업한 사람은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박사(kisdoktor)학위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단계에 걸친 학위가 있는데, 과학박사청원학위(tudományok kandidátusa)와 최고의 학위인 과학박사(tudományok doktora) 학위이다. 이 두 학위는 독창적 연구와 특수 실험 등 학문적으로 고도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 주어진다.

4) 교수진 및 연구 활동

헝가리 대학의 교수는 (정)교수(tanár), 전임강사(docent), 시간 강사(adjunktus) 그리고 조교(tanársegéd)로 구별된다. 교수와 전임강사는 헝가리의 가장 권위있는 연구 기관인 헝가리 학술원 원장과 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학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수 지원자에게는 과학박사(tudományok doktora) 학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의 봉급은 문화부가 결정하고 지급한다. 교수당 학생의 비율은 1:8 정도이다.

대학의 연구 활동은 실제 해당 부처의 후원과

항가리 학술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연관시켜서 행해진다. 대체로 세 가지 연구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의 경제적 필요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장기간의 또는 복합적인 연구 유형이며, 둘째는 외국의 연구 업적을 수용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며, 셋째는 정부의 시책이나 요구와는 별개로 여러 학문 분야의 협조를 포함해서 기초 이론 연구에 치중하는 유형이다. 항가리 대학의 연구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며, 교수들에게는 의무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학과장들의 경우 그들 시간의 25%를 연구에 할애해야 한다.

5) 문제점과 경향

항가리의 대학교육 기관은 1948년 이후 양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해 왔으나, 그 내용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대학을 비롯한 교육 기관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경제 성장에 십분 활용하려 함으로써 인문계 대학의 증설은 묶어두고(전국에 4개 대학이 있을 뿐이다), 전문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위한 공대·농대·사범대 등의 설립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학문 간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으며 대학 입시에서 인문계 대학의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기술 및 직업 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 실제 입학 정원의 300%를 초과하고 있다. 이들 중 언어학·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는 지원자가 편중되어 입시 경쟁률이 수 백 %를 넘는 반면, 공과대학과 기술전문대학 등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양적으로 늘어난 교육 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의실과 실험실 등 학교 설비가 부족하고, 학생의 사회 복지 차원의 혜택인 기숙사와 도서관 이용 및 식비, 장학금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비의 부족과 교과과정의 단편성 등 개발 부진으로 인해 교수와 학습 효과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학교 제도 내부의 문제로 직업 고등학교와 기술적 노동자를 위한 특수 전문 교육 기

관 사이의 기능적 혼란이다. 전문 기술을 양성하는 기관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상호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고등교육을 마친 후의 직업 배치의 문제이다.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계획 경제 하에서 국가가 대학 졸업생을 배치하는 제도는 고급인력을 균형있게 각 분야에 공급하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실제로 개인 각자가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과 이직 현상 그리고 대학으로 편중되는 현상 등이 표출되고 있다.

5. 교류 전망

항가리의 대외 교류는 공산화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물론 서방 유럽 국가들과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50년대초 사회주의 국가 간의 정치적 결속과 공산주의 이념의 공동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간 협정에 따른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는데 대학과 연구소 등의 교육 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대학 간의 교류 내용은 교수·학생의 상호 교환과 자료 교환을 토대로 한 공동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항가리의 각 대학에는 사회주의권 국가 학생들을 위해 일정 비율의 입학울 보장해 놓고 있으며, 유학생의 유학 기간중의 학비와 생활비 및 의료 혜택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1956년의 항가리 사태를 계기로 항가리는 정치를 제외한 전 분야에 유화적인 정책으로 선회했다. 지식인들의 지적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했으며, 서방 세계와의 접촉을 재개하여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대학들과의 교류가 개별적으로 시도되었다. 학생 교환은 서방 세계의 학생들이 주로 항가리에 유학하는 방식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항가리 정부 또는 대학의 초청으로 온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로 자비 유학도 가능하게 되어 그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항가리 의과대학에는 서독의 학생들이 상당수 유학하고 있으며, 그밖에 리스트 음악원 등 예술 분야에 유학생이 많다. '60년대 후반의 항가리 경제 개혁 이후로는 서방의 선진 산업 기

술과 기계 등의 도입을 목표로 각 공과대학들이 독일과 프랑스 대학과의 공동 연구와 교수 파견 등의 방식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공식적 교류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제3국을 통한 교역의 형태로 경제 분야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문화 차원의 교류는 1988년 양국간 무역 사무소 교환 설치와 1989년 2월 양국 간의 공식 수교와 함께 경제 협력 협정과 문화 교류 협정을 정식 체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 공식적인 조사는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헝가리 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의 상호 파견과 세미나 개최를 비롯한 공동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 교류의 확대와 함께 그 내용과 조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헝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연구에 기초를 이루는 어학·문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중 화학 그

리고 음악·예술 분야 등일 것이며, 우리나라가 제공할 만한 분야는 전자공학 계열과 경제학,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가 될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헝가리로 유학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우리는 현재까지 헝가리의 대학 실태와 유학 조건 등이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헝가리는 국내의 경제적 이유로 외국의 자비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유치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입시난과 자비 유학의 전면 개방으로 인해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진정한 학술 교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상호 간의 왜곡된 이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교수와 학생의 교환,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등 실질적인 교류를 구체화시키면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상호 교류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